

고성군의회 새해 예산안 원안 의결

16일 올해 공식 의정활동 종료 ... 의정활동 유공자 21명에 의장 표창 수여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2일간 진행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분회의를 열어 2012년도 새해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의정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막판 계수 조정에 상

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고성군이 제출한 2천371억6천34만7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김진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의 결과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분배와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감했으며,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성군의회와 집행부가 주민과 더불어 공생의 기회를 갖고자 위원 전원의 합의로 원안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정활동 유공 수상자 명단이다.

황창길(간성읍, 이장), 정의섭

(간성읍, 이장), 함명자(간성읍, 주민자치위원), 김양성(거진읍, 자율방범대장), 유화자(거진읍, 자원봉사회원), 송충열(거진읍, 부녀회장), 전형근(현내면, 이장), 조영찬(현내면, 이장), 한선제(죽왕면, 주민자치위원), 정명식(죽왕면, 자율방범대장), 용광열(토성면, 자율방범대), 윤경숙(토성면, 부녀회), 김한기(토성면, 의용소방대원), 조미란(주민생활지원과), 허계종(접경개발기획단), 전아름(간성읍사무소), 백락형(거진읍사무소), 정훈진(현내면사무소), 이용규(죽왕면사무소), 최은경(토성면사무소), 정순정(의회사무과)

최광호 기자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활동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 · 출마 선언 잇달아

“영북지역 새희망 만들기”

○...한나라당 손문영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후 3시 속초시 조양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이날 개소식에서 손문영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고성-속초-양양의 영북지역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겠다”며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 비전제시능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진력 및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영북지역 새희망 만들기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역설.

그는 특히 “고성-속초-양양지역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정부의 확대와 지역 정치인의 무능이 빚어낸 예고된 위기”라며 “지금 영북지역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난관일지라도 강력한 돌파력을 발휘해 지역발전의 일궈낼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호소.

이장회의 · 금융기관 방문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현직 신분으로 활동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둘러 않았다”며 “천천히 준비해서 내년 1월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송훈석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토



지난 13일 열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손문영 예비후보와 부인 조정옥씨, 아들 손창수씨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이동기 후보가 이동식 선거사무소인 '이동기의 희망버스'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성면사무소에서 열린 토성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지역 이장단과 인사를 나누고, 이어 고성지역 금융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농업 등 금융기관을 찾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또 오후 1시30분에는 속초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예정된 속초 2011 평생교육대학 작품전시 발표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30분에는 양양 기사문 일원에서 열리는 ‘양양 기사문 도치, 굵치 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

인구 30만 설악권 시대 건설

○...민주당 신창현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속초시 중앙시장 갯배 입구 황소건물 3층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유권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신창현 예비후보는 13일 ‘인구 30만 설악권 시대 건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산 관광길을 다시 열고, 러시아까지 가스관과 철도를 연결하고, 서울까지 철도로 출퇴근하고, 양양에 국제비행사 양성대학을 세워 남북교류 중심의 설악권 시대를 만들겠다”고 역설.

그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동서고속철도의 종점은 속초가 아니라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까지 연결될 것”이라며 “서울로 떠나는 발전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전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

이동식 선거사무소 화제

○...민주당 이동기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전국 최초

로 이동식 선거사무소인 ‘이동기의 희망버스’ 운영에 들어가 화제.

이동기 예비후보는 “가장 젊은 후보로 역동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유권자에게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 이동식 사무소를 구상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권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수시로 이동시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편 속초시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컨테이너와 천막 등에도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버스를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동할 때마다 사무소 설치 및 변동 신고를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활동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차별없이 기사화해드립니다.

☞보내실곳 : goseongnews@hanmail.net